

# 민주 “검찰, 피의사실 공표 사례 점검해 고발 검토”

### 검찰개혁 제도마련 토론회…“없는 사실 조작해 보복” 수사 불공정 비판 “노오래 체포안 부결, 당론 아닌 자유 의사”…김경수 향후 역할론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노오래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폭제로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는 당내 단일대오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검찰을 향한 공세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과연 검찰에 맞서는 당내 결집이 지속될 것인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불공정 수사 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

열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정적을 향해선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가

결을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맹폭을 가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단순히 체포동의안 요청 경위를 설명한 반면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가결을 압박했다는 비판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의 어제 설명 중 ‘특수 검사로서의 경험, 확신, 상식’ 등과 같은 표현과 제스처는 체포안 취지 설명을 한참 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 장관이 낱낱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21대 국회 첫

사레인 데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높은 만큼 ‘방탄 논란’ 확산에는 강한 방어막을 쳤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탄이 아니냐고들 하는데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를 했다”며 “압도적 반대로 부결이 된 것은 그만큼 많은 의원이 검찰 수사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체포안을 부결시켜서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는 출소

당일 김 전 지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최근 정태호 의원을 민주당위원장에 앉히는 등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결합 행보에 나선 터라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와 추후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이날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추모 미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도 당의 결속 도모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추모사에서 “수십 년간 김 전 의장과 같은 분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 어렵게 살아 올린 민주주의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저희 모두가 김근태가 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불공정 수사관행 바라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소환일 다음달 10~12일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문자 공보를 통해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에 그다음 주 출석을 제안 하였으나 변호인은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출석일을 최소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 檢, 고 이대준 씨 실족해 조류에 의한 표류 결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가 조류에 의해 사고 지점까지 표류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국가정보원 법 위반·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군부독재 찬양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퇴해야”

#### 이형석 의원, 본회의 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군부독재를 찬양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광동 씨는 정부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며, 5·18 정신을 폄훼하고 광주를 모욕했다”면서 “북한군 개입설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고 광주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획책한 날조였다는 점에서 김 씨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김씨는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고,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했다”면서 “김씨는 좌우 이념 대립의 틀바구니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



한 민족사적 비극의 피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고, 4·3 추념식에서는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씨는 ‘4·19도 ‘밭 달라고 우는 백성’의 얘기”라며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수록된 시민혁명 4·19 가치마저 폄훼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대중 정치학교’ 광주·전남서 3기 과정

### 다음달 20일까지 수강생 모집

김대중 정치학교가 내년부터 제3기 과정을 광주·전남에 선보인다.

김대중 정치학교는 내년 1월20일까지 수강생 모집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의 기간은 내년 1월26일부터 4월20일까지 12주간으로, 매주 목요일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대중 정치학교는 1, 2기 과정을 서울에서 마친 데 이어 3기를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학교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강의와 노벨상 기념관, 하의도 생가 현장 학습, 토론회 등을 제공한다.


정치학교 강좌는 ‘김대중 정신과 생애’ ‘민주주의

의 ‘인권’ ‘5·18민주화운동’ ‘정당정치’ ‘햇볕정책’ ‘6·15 남북공동선언’ ‘외교·안보정책’ ‘외환위기 극복’ ‘복지정책’ ‘IT산업과 미래 먹거리’ ‘문화정책(K-컬처)’ ‘민중화해와 한반도 평화비전’ 등을 주제로 이어간다.

‘김대중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지방문 전 전남대 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두관 국회의원과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교장인 문화사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택근 김대중 자서전 구술 집필자,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 백학순 김대중 학술위원장,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 김명근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강사로 나선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도 특강을 맡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h3>전원주택 (1채) → 8,000만</h3>	<h3>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h3>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컨하우스</li> <li>② 소형 주택</li> <li>③ 전기,수도,배수 완비</li> <li>④ 주말 하우스 최고</li> <li>⑤ 잔디,나무,일체 포함</li> </ul>  <p>(장성댁 5분) (등산로 있음) (6M도로 접)</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 용 4억5천 )</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 기초부터 실전 )</li> <li>2) 중급반 ( 실전부터 ~ )</li> <li>3) 특수반 ( 유치권, 법지, 지분 )</li> <li>4) 투자반 ( 투자가능한 분 )</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td> <td>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td> <td>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td> </tr> <tr> <td>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td> <td>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td> </tr> <tr> <td>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td> <td>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td> </tr> <tr> <td>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td> <td>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td> </tr> <tr> <td>북구우산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td> </tr> <tr> <td>서구화정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td> </tr> <tr> <td>북구운암동 (아파트)백산블루 ▶</td> <td>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백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백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h2>010-6670-9800</h2>	<h2>010-2614-9801</h2>																	